

# '기재부 복지부동 행정' 맹공

## 유성엽 의원 "소득주도성장 정책 부작용 미리 예측하고 대처했어야"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이 최근 불거진 소득주도성장 논란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복지부동 행정을 지적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은 가처분 소득을 올려 수율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경제를 활성화 하자는 것"이라며, "저임금이 고착화 되어있고,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맞다"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성에 대하여 동감을 표했다.

그러나, "현재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더해지고,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기재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공공부문 일자리 증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면밀하게 부작용을 예측했는지는 의문"이라며 정책 실행에 대한 사전준비가 미비함을 지적했다.

특히, 최근 김동연 부총리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다소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것에 대하여, 마치 남일 보듯 한다면 강하게 비판했다.

유성엽 의원은 "정치는 방향을 설정하고 행정은 그를 실행하는 것인데, 실제 집행하는 기관인 기재부 자신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을 이제와 후회를 타하는가"라면서, "부작용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기는커

녕, 혁신성장이 더 필요하다니 하면서 발 빼는 모습은 복지부동하고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 의원은 "지금의 경제난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발생한 경제실정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면서, "전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하여 정확히 분석하고, 현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을 잘 견어내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도록, 민주평화당을 비롯한 야당이 적극 제안을 하고 나서야 할 때이다"라고 야당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김진성기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4일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에 위치한 정의당 전북도당에故 노회찬 원내대표 시민 분향소를 마련한 가운데 정의당 전북도당 관계자들이 분향을 하고 있다.

# "낭비·소모성 예산 없도록 꼼꼼하게"

##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 돌입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부터 2018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전북도는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6조 6,708억 원(본예산 대비 2,629억 원 증가, 4.1%↑)의 규모로 지난 7월 6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중 일반회계가 5조 3,854억 원(본예산대비 2,553억 원 증가, 4.98%↑), 특별회계가 4,982억 원(본예산대비 76억 원 증가, 1.55%↑), 기금 7,872억 원(변동없음) 규모이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방향을 보면 법정 의무적 경비, 중앙재원 도비부

담 등 의무지출 경비를 최우선 반영, '도정 핵심과제 등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시급한 예산지원', '정부 추경에 부응하는 일자리 창출, 일자리 격차 완화 및 서민생활 안정' 등 일자리 여건 개선 사업 우선 반영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편성방향의 타당성, 추경사유와 시기의 적절성 여부, 공약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시기의 적절성, 주요 신규 사업의 경우 사전 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절차의 수행여부 등을 기본 심사기준으로 전제하고, 특히 군산의

고용산업위기 극복과 관련한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기회 확보, 신산업 및 대체산업 육성 등을 비롯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생활안전 대책 등 도민의 생활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할 예정이다.

김대오 위원장(익산)은 "익산시의회에서 그동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청취한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한 예산심사로 건전한 재정운용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진성기자

# '국제주요체육대회' 1억5000만원 예산 삭감

## 도의회 문건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마무리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는 24일 제355회 임시회 제6차 회의를 열어 소관 실국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최종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건위원들은 "SOC

관련사업을 본예산에 확보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하는 것은 잘못된 행태이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기정예산보다 더 많은 추경예산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과다계상, 중복투자, 필요성 미흡, 지역 간 예산 불균형 사업에 대해 꼼꼼한 계수조정을 거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국제주요체육대회 지원비' 1건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심사를 마무리 했다.

정호윤 위원장은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 평화와정의 원내교섭단체 지위 상실

## 평화당 "당장 재구성 시도 없어" ... 공동 교섭단체 재구성 논의

민주평화당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사망으로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무산된 것에 대해 "지금 당장은 무리하게 공동교섭단체 재구성 등을 시도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24일 오전 비공개 의원총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입장을 전했다.

두 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지난 4월2일부터 지난 23일까지 113일 간 활동했다. 하지만 노 원내대표의 사망으로 공동교섭단체 구성 최소 요건인 의석수 20석을 충족하지 못해 사실상 해체 상태에 놓여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예기치 못한 일로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데 대해선 굉장히 안타깝다. 향후 국회에서의 활동을 하는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도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같이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

했던 정의당이 받았을 충격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무리하게 공동 교섭단체를 재구성하거나 그런 시도를 할 생각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이 원내대변인은 "오는 9월3일부터 예정된 정기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해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지는 정해야하기 때문에 다음달 중순부터 공동 교섭단체 재구성의 필요성 등을 그때쯤 논의해 정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부터 8월 중순까지 국회 내 큰 논의의 장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원구성이 끝났고 각 상임위원 업무보고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별로 논의할 큰 사항은 없을 것"이라며 "무리하게 논의를 진척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평화당은 앞서 국민의당 시절 같은

소속이었다가 바른정당과의 통합과정에서 탈당한 손금주·이용호 무소속 의원을 영입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온 바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손금주, 이용호 의원에 대해선 아직도 그러한 뜻(영입)이 유효하기 때문에 조만간 의사를 다시 한 번 전달하고 가능할 지 여부에 대해 파악할 것"이라며 "또 정의당이 당연하게 공동 교섭단체 재구성에 참여한다 안한다는 입장도 아직 없기 때문에 추후 의견을 물어봐야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영입 가능성 여부에 대해 이 원내대변인은 "(이용호·손금주 의원이) 113일 간의 여정을 보면서 공동교섭단체 운영모습과 특성을 봤을 것이다. 평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교섭단체 참여를 검토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차원"이라며 "노 원내대표 사고 이전에도 공동 교섭단체 참여 의견을 계속 전해왔다. 이번 일로 교섭단체가 붕괴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날 중 국회 측에 공동 교섭단체 재적의원 보고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뉴스

#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선거 윤곽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용모 전주병지역위원장)가 23일 1차 회의를 갖고 후보 등록일과 선출방식 등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일정을 확정했다.

24일 민주당 전라북도당선거관리

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도당 홈페이지(www.theminjoo.co.kr)에 도당위원장 후보자등록공고를 거쳐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자등록을 받는다.

도당위원장 선출방식은 도당대의

원 투표소투표 50%+권리당원 ARS 투표 50%가 반영되며 권리당원 ARS투표는 8월 2~3일 2일간 진행 된다.

도당대의원 투표소투표는 8월 4일 오후 4시 우석대 체육관에서 전라북도당 정기대의원대회 및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자 전북 합동연설회에서 함께 실시된다. /김진성 기자

# 무주 2018 남대천 물축제

불종은 무쥬! 물만남 물축제!

2018. 07. 27(금) - 07. 29(일)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남대천 일원

주최·주관 무주읍·무주읍발전협의회

축제일정	요일별		행사명	장소
	일시	시간		
7월 27일 금요일	11:00	반디어린이 수중축구 대회	수중축구장	
		무주군 동아리 공연		
	18:40	래시가드 패션쇼	메인무대	
		EDM 파티		
7월 28일 토요일	11:00	반디어린이 수중축구 대회	수중축구장	
		전국퍼포먼스댄스대회		
	18:00	식전공연	메인무대	
		개막식		
	19:00	축하공연 [홍진영]		
		20:00		불꽃놀이
7월 29일 일요일	16:00	전국배틀댄스대회	메인무대	
		20:00		영화상영